



문의 : 2006서울WLIC
조직위원회 사무처
전화 : 02-535-7085
팩스 : 02-535-7084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소식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 및 도서관인 격려 오찬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는 5월 30일, 올 8월 20일부터 개최되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 및 도서관계 주요인사 등을 초청하여 청와대에서 격려 오찬을 베풀었다. 이 자리에는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들과 한상완 도협 회장 등 도서관계 인사 그리고 문화관광부 및 정부 관련부처 관계관, 국내 주요 언론인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오찬 행사에서는 서울대회의 의의와 추진경과 및 행사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상영했으며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추대패를 전달했다. 또한 탤런트 박상원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권양숙 여사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의 명예위원장이므로서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이어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을 제공하고, 일반 국민에게 자기 계발과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씀을 하셨다. 또한 권양숙 여사는 서울대회를 위한 기업인 및 언론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대회를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지식정보 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발판으로 삼고 국내에는 지역·계층 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음은 권양숙 여사의 인사말씀 전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와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명예로운 직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도서관을 매개로 정보이용에 관한 각국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서 영상물을 보면서 이번 서울대회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은 창의적인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변화의 속도 또한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단히 학습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개인의 성공도, 나라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도서관이야말로 이러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가장 역동적인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나라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서관은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소통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일구는 구심이기도 합니다. 지역과 세대, 그리고 계층 간에 존재하는 정보화 격차와, 그로 인해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도서관은 무엇보다 훌륭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욱 많아지고, 보다 가까워져야 합니다. 도서관의 규모와 서비스를 한층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 같은 도서관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과 같이 각계의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에 아홉 곳이나 문을 열었고, 부천과 같은 '작은도서관'의 성공사례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이러한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다가올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도서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도서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2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예위원장으로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성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총회 개최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총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오전 9시 30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06년도 조직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신기남 조직위원장, 권경상 부위원장(국립중앙도서관장), 배용수 부위원장(국회 도서관 관장), 유원규 부위원장(법원도서관 관장), 황대준 부위원장(한국교육학술정보연구원 원장), 이규형 위원(외교통상부 차관), 김재운 위원(국회의원), 도영심 위원(한국문화 관광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80여 명의 조직위원 및 서울 대회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회계감사 보고와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승인 등의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IFLA Express 1호 한글판 발간

2006년 3월 영문으로 발간된 대회소식지인 IFLA Express 1호가 국문으로 번역·발간되었다. IFLA Express는 대회 전 2회(1호~2호), 대회 기간 중 5회(3호~7호) 발간되며, 대회 전 발간되는 1호와 2호는 전 세계 각국의 회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발송된다. IFLA Express 1호 한글판에는 신기남 조직위원장의 환영사, 방문 도서관 일부 소개, 주요 마감일자, 각종 회의의 정보, 대한민국과 서울 소개 등 서울대회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IFLA Express 1호 한글판은 2006년 6월 2일~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도서관 학술회의 참석자들에게 배부되었으며, 한국도서관협회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서울대회 관계부처, 언론사 등에 배포되었다.

IFLA Express 영문판 2호 발간

IFLA Express 영문판 1호에 이어 6월 16일 IFLA Express 영문판 2호가 발간되었다. IFLA Express 영문판 2호는 전세계 각국의 IFLA 회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전송되며, 추후 한국어로 번역되어 발간된다. IFLA Express 2호에는 기초 연설자 및 특별강연자 소개, 전시신청 기업 현황, 각종 문화행사 안내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IFLA 공식 홈페이지(www.ifla.org)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ifla2006seoul.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의 도서관(Libraries in Korea : past, present, future)」 제3차 편찬위원회 개최

한국의 도서관 편찬위원회(위원장: 김석영)에서는 6월 2일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편찬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도서관(Libraries in Korea : past, present, future)」 한글판의 마무리 작업과 역동적인 한국 도서관의 모습 및 활동상황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목차를 최종 점검하였다. 이 책자는 국문, 영문판으로 각

3,000부씩 발간되어 영문판은 대회기간 중에 참가자들에게 배포되고 국문판은 대회 후 한국도서관협회 단체 회원 및 개인회원, 서울대회 관계부처, 언론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2006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부스 참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6월 2일~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서울대회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이 자리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IFLA Express 한글판 1호를 비롯한 서울대회 공식 포스터 및 관련 자료 등을 배포하였다. 서울대회 홍보부스에는 도서관인들과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참가자들이 방문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최종프로그램집(Final Program) 제작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최종프로그램집이 제작 중이다.

최종프로그램집에는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주제와 발표자, 리셉션, 문화행사 등 일자별 프로그램 및 장소와 같은 서울대회 관련 세부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회등록자 가방에 넣어 배포된다. 7월 말 경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온라인 참가등록 안내

지난 5월 15일로 서울대회 조기등록이 마감되고, 5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2차 등록이 진행된다. 2차 등록은 IFLA 공식 홈페이지(www.ifla.org)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에 대한 안내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안내문 94쪽~99쪽 참조>

방문도서관 교통편 확정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방문도서관의 방문객 교통편이 확정되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사서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방문도서관 프로그램에는 선정된 37개 도서관 모두 방문객을 위한 전용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뿐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방문 도서관에 참가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자원봉사자 면접 실시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에는 서울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선발하였다. 아울러 대회기간동안 일부 특별히 필요한 업무에 배치될 자원봉사자 면접을 6월 20일(화) 오전 10시부터 조직위원회 사무처에서 실시하였다. 면접은 대회 관심도, 업무경험, 외국어능력의 3개 항목에 대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7월부터 대회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은 후, 8월 현장 적응훈련을 거쳐 담당업무별로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자 활동분야는 47개 분과회에서 주재하는 각종회의,



전시회, 방문도서관, 문화공연, 각종 만찬, 등록데스크, 공항데스크 및 임원회의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도서관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회를 찾는 국내·외 참가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홍보대사 위촉



지난 6월 1일 중견 연기자 박상원씨가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박상원씨는 20년 이상의 연기 생활 동안 지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연기 활동 뿐 아니라 사회공익 활동에도 활발히 앞장서 왔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상원씨는 “지식 문화올림픽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널리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의의 및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대회 관련 각종 홍보 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전시회 신청 현황

지난 1월부터 접수를 받은 서울대회 전시회가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다. 현재 국내외 도서관·정보관련 기업, 관계기관 등 85개사에서 135개의 부스를 신청하였으며,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전시회 참가 기업 명단	비고
1	3M	
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	
3	Bci Eurobib	
4	Bibliotheca Alexandrina	
5	Bibliotheca RFID Library Systems AG	
6	Blackwell Publishing	
7	BMJ Publishing Group	
8	Bowker	
9	Buery System Co. LTD	한국
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CAS	
12	Checkpoint Systems	
13	China Science and Technology Periodical (The 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14	CILIP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15	CISTI,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16	CSA	
17	DQ Tek. Inc.	한국
18	EBK(Electronic Book Korea)	한국
19	Ebrary	
20	EBSCO Information Services B.V.	
21	ECO, Inc.	한국
22	Elsevier	
23	Emerald Group Publishing	
24	Ex Libris Group	
25	Family History Library	
26	Futureinfonet Inc.	한국
27	GEAC	
28	German National Libra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9	GEONET F1	한국
30	HIMS Co Ltd	한국
31	Idea Group Inc.	
32	IEEE	
33	IFLA	
34	iGroup	한국
35	Imageware Components GmbH	
36	Innovative Interfaces	
37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38	JAMA Archives Journals	
39	Japan Library Association(JLA)	

번호	전시회 참가 기업 명단	비고
40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JST)	
41	John Wiley & Sons	
42	JSTOR	
43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
44	King Abdulaziz Public Library, Riyadh	
45	KISTI(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한국
46	K.I.T. Co., Ltd	한국
47	Korean Publishers Cooperative	한국
48	Libraries Unlimited	
49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한국
50	National Diet Library(NDL)	
51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NII)	
52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53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54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55	Nicom Co., Ltd.	
56	Nielsen Bookdata	
57	Nordplan	
58	OCLC	
59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60	Ovid	
61	Oxford University Press	
62	Project Muse	
63	ProQuest Information and Learning	
64	Refworks	
65	Relais International	
66	Sage Publications	
67	Samheung Scientific Corporation(KLCC)	한국
68	SirsiDynix	
69	Softlink	
70	Springer	
71	Sungwoo DMS Co. Ltd.	한국
72	SWETS Information Services	
73	TBMC-Transmission, Taipei	
74	TDNet	
75	Teletift GmbH	
76	The Library Corporation(TLC)	
77	The IET Inspec	
78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한국
79	Thomson Gale	
80	Thomson Scientific	
81	Tshinghua Tongfo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Co. LTD(Beijing)	
82	VTLS	
83	WIZSYSTEM,INC	한국
84	YBMSISA. Com	한국
85	Yushodo Co. Ltd, CEO	

(6월 20일 현재, 알파벳 순)

* 협회소식 *

도서관 관련 단체들, 국회에 도서관법 조속 처리를 촉구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9개 관련 학회 및 협의회는 공동으로 제17대 국회 2기 원 구성에 즈음하여 지난 4월 25일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6월 20일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보냈다.

의견서는 국력에 비해 낙후된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서관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도서관법에 명시된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다른 지엽적인 내용으로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협회 이경구 사무총장은 6월 20일 이미경 의원을 예방하여 법안 발의에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직접 전해 드렸다. 이미경 의원은 이에 대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의견서는 본지 100쪽 참조]

2006년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추진

우리 협회는 2005년에 이어 올해에도 에도 서울 문화재단의 지원으로 2006년 책 읽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한다.

5월 30일(화)까지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개 도서관과 3개 컨소

시엄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 협회는 6월 8일(목) 실행위원회를 열어 창의성, 실현성, 적정성, 예산배분의 효율성 등 4가지 항목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신청한 23개 도서관과 컨소시엄 모두에 대해 각각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신청금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차등지원키로 결정하였다. [문의 : 강원영, ☎ 02-535-4868]

■ 심사 기준

- 1)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기획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으나, 이번에는 이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없었음.
- 2) 지원신청서를 참고하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으로서의 창의성, 실현성, 적정성,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A, B, C, D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함.

■ 심사 결과

- 총 개별 20개관과 컨소시엄 3개관 지원 결정 -

- 1) 개별지원 신청 도서관
 - A(1개관) : 어린이도서관
 - B(3개관) : 관악문화관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 강동도서관
 - C(6개관) : 마포평생학습관,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정독도서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서대문도서관, 구로도서관
 - D(10개관) : 중계평생학습관, 종로도서관, 서대문구 이진아기념도서관, 도봉도서관, 성동구립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용산도서관, 고척도서관, 강서도서관, 동대문도서관

※ 지원금 : A-450만원, B-250만원, C-150만원, D-100만원

2) 컨소시엄 신청 도서관

- A(1개) : 강남도서관, 정다운도서관, 즐거운도서관
- B(1개) :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 C(1개) :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 지원금 : A-450만원, B-250만원, C-200만원

'2006 서울국제도서전' 부스 운영 및 전문인의 날 세미나 개최



우리협회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6월2일(금)부터 7일(수)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6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였다.

우리 협회 부스에서는 협회 출판물과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2006서울WLIC 등을 소개하였으며 '도서관'으로 삼행시 짓기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가졌다.

'도서관'으로 삼행시 짓기 수상작은 아래와 같다.

◆ 최우수상 1명(문화상품권 5만원) ◆

배지혜

도 :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서 : 서울에서 도서관 찾기 힘들어요. 산으로 간 도서관

관 : 관심 가져 주세요. 우리 곁으로 올 거예요. 내 집 같은 도서관!!

◆ 우수상 3명(각각 문화상품권 3만원) ◆

박희정

도 :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서 : 서가를 가득 채운 책들로

관 : 관객이 아닌 주인공인 나를 그려봅시다.

유성범

도 : 도심 속의 산소 같은 휴식공간

서 : 서두름이 없는 여유 공간

관 : 관심만 있다면 당신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최종원

도 : 도심 한복판 뜨거운 피약벌 아래

서 :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관 :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너무나도 고마운 우리의 친구

◆ 가작 5명(각각 문화상품권 2만원) ◆

김수정

도 : 도시가 답답한 가요 도서관으로 가세요

서 : 서울 곳곳 찾아보면 책 읽을 수 있는 곳 참 많아요.

관 : 관심 속에서 당신의 지혜가 싹틀거예요.

김애란

도 : 도시마다 시골마다 책을 읽어오

서 : 서늘한 바람이 마음 깊이 불어오도록

관 : 관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김용일

도 : 도서관을 세웁니다. 동네에 하나씩

서 :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마을마다 하나씩

관 :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청원

도 : 도로록 굴러가는 연필소리, 살랑살랑 넘어가는 책장소리.

서 : 서로서로 등을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책에 빠져든 아이들

관 : 관자놀이 보송한 솜털만큼 순수한 광경, 어느 따스한 오후의 도서관 풍경

정수연

도 :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면 거드랑이 밑에서

서 : 서서히 자식의 날개가 돌아난다 도서

관 : 관에서 책을 읽으면 새로운 생각이 솟아난다

또한 '2006 서울국제도서전' 첫날인 6월 2일(금)에는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실에서 우리 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한국출판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출판진흥재단이 후원한 '전문인의 날'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공동



관심사인 '독서진흥 환경개선 및 진흥정책 모색'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독서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독서진흥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세미나 주제문과 토론문 요약 내용은 본지 31쪽~72쪽 참조]

■ 프로그램

<기조연설>

도정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상임대표)

<1부>

주제 : 독서환경과 독서진흥

사회 :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발제 :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토론 : 김상욱(아동문학평론가,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전기옥(북스타트코리아 기획위원)

양동의(순천시 평생학습지원과장)

<2부>

주제 : 독서진흥 정책

사회 :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발제 : 김수한(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토론 : 김재윤(국회의원, 문화관광위원회)

남미영(한국독서교육대학 교수, 문학박사)

이만수(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3부>

주제 : 인터넷 시대의 출판·독서 진흥 :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의 좌표

사회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제 : 주요 업체 동향

포털 : 공연수(네이버 책서비스 팀장)

서점 : 성대훈(교보문고 디지털콘텐츠사업 팀장)

발제 : 출판/독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과제

출판사 : 김인호(바다출판사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저작권 : 김기태(출판평론가 /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독서 : 이정춘(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3회 한국도서관협회장배 전국사서테니스 대회 개최



제3회 한국도서관협회장배 전국도서관사서테니스 대회가 5월 26(금)부터 27(토)까지 양일간 동국대학교 테니스장(우천으로 한양대학교에서 동국대학교로 장소 변경)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우리협회 이경구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참가자들과 교류를 나누었다.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 입상자 명단

<집현전부>

- 우 승 : 김정용(목포대), 김용수(KBS)
- 준우승 : 김진욱(국민대), 박세훈(동국대)
- 3 위 : 황명길(고려신학), 김병훈(동국대)
- 김상호(항공대), 김종기(동국대)

<규장각부>

- 우 승 : 김성철(KBS), 김종철(동국대)
- 준우승 : 김인하(동해발한), 전홍성(한신대)

· 3 위 : 박노경(가톨릭대), 박인호(한성대)
오민수(안산중앙), 노장오(동국대)

· 종합 토론 / 박익환(변호사)
/ 이대희(인하대학교 교수)

*** 국내소식 ***

문화관광부,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 개최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관한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가 6월 14일(수)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부는 한미 FT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전문가들이 참여한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심도있게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 프로그램

<발제>

- 한-미 FTA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토론>

- 일시적 복제 문제
/ 김규성(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
/ 남희섭(변리사)
- 기술조치 우회금지 / 이은우(변호사),
/ 전유림(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본부장)
- OSP 책임 강화 / 윤성우(음제협 본부장)
/ 김지연(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보호기간 연장 / 최정환(변호사)
/ 박성호(한양대학교 교수)
- 저작권 집행 강화 / 남형두(연세대학교 교수)
/ 정진성(경희대학교 교수)

문화관광부, 2006년 우수 학술도서 선정

문화관광부는 6월 7일(수) '2006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534종을 선정·발표하였다.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금년 11회째를 맞은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은 우수한 학술도서를 선정·보급하여 학술 출판 진흥 및 출판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올해는 지원액이 전년도 25억원에서 55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분야별 선정 종수는 총류(13종), 철학(32종), 종교(17종), 사회과학(162종), 순수과학(18종), 기술과학(84종), 예술(56종), 언어(34종), 문학(71), 역사(47종)이다.

이중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도서는 『경제학의 핵심 지식정보원』(한상완 외 저. 연세대학교출판부)과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주디스 A.시스 저 / 이우정 외 역. 도서출판 이체)이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된 우수 학술도서는 도서 1종당 1,000만 원 내외 도서를 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2006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목록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심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2005년12월30일, 공포, 대통령령 제19240호)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범위가 축소되어 도서관에서 발행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상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본지 관련기사 1월호 10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영상산업협회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동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안에 대하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하여 도서관계의 의견을 우리 협회에 물어왔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5월26일(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회의에 참석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우선 우리 도서관계의 현황을 파악한 후 다시 협상할 것을 요점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학교도서관대회'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양일 간 전국의 학교장 및 교사, 공공도서관,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2006년 학교도서관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및 개별학습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사업의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개회식에서 김진표 교육부장관(부총리)은 격려사를 통해,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이미 3,800개의 학교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했고, 올해도 7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462개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사업에는 문화적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을 위하여 252개의 학교도서관 여건 개선 사업

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시설로 자리잡도록 시·도교육청에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시회장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사례 등 특색있는 학교도서관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학교도서관의 발전상과 미래의 도서관 모습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날 행사에서는 학교장 및 도서관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소개와 우수사례 발표, 학교도서관 실물관에서는 도서관 활용수업, 빛그림 동화 시연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이사장의 "책과 함께하는 인생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를 위한 요구분석과 프로그램 방향" 등 9편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학교도서관 실물관에서는 "저자와의 대화"와 함께 "도서벽지 학교도서관에 책보내기" 등의 행사가 있었다. 특히 "도서벽지 학교도서관에 책보내기" 행사는 우리 협회도 참여하였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 혁신 컨퍼런스 개최

과학기술부는 5월 30일(화)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 혁신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정보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선진 사례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 혁신인프라의 미래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 작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프로그램

〈특별강연〉

-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 박성주(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
- The Future of Science & Technology
Circulation Service
/ Andrea Norris(미국과학재단 Deputy CIO)

〈정책/제도 세션〉

- National Science Information System to Cyber
Science Infrastructure
/ Miyazawa Akira(일본국립정보화학연구소 교수)
- 수요자 지향적 과학기술 정보 유통 사례
/ J. Kraus(독일사회정보연구소장)
- Toward Integratio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e-science and NTIS)
/ 정갑주(건국대학교 교수)
-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NTIS의 미래
/ 조영화(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기술 세션〉

- 과학기술 유통의 필수 서비스 요소와 인프라
/ 최형광(HP 이사)
-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로서의 그리드
/ 김홍주 (Oracle 실장)
- Information Life Cycle 관리의 중요성
/ Gery Messer(EMC VP)
- A case study of Business Intelligence at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Vernon Ross
(Chief, Budget Operations and Systems)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소재 한국관련 수집 기록물’ 열린정책세미나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5월 22일(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소재 한국관련 수집기록물 정보 공유 방안’을 주제로 열린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소재 한국관련 수집기록물’과 관련하여 국내 수집기관들과의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 프로그램

〈주제발표〉

- 한국 현대사 자료 수집과 유관기관의 공동 활용 방안
/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해외소재 한국관련 수집자료의 정보공유를 위한 활용
방안 / 이승휘(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사례발표〉

- 미국지역 한국관련 자료의 소재정보 현황
/ 이흥환(국립중앙도서관 미국지역 자료수집전문원)
- 해외소재 한국관련 역사기록의 관리방안 연구 : 수집
기관별 분석 / 김성겸(주)한국문헌정보기술 기록관리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웹서비스 소개
/ 안인덕(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한국박물관협회, 제9회 전국박물관인대회 개최

(사)한국박물관협회는 5월 22일(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회 전국박물관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세계 박물관의 날’(5월18일)을 기념하고, 전국의 박물관·미술관 종사자들이 모여 선진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우리협회 한상완 회장과 이경구 사무총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한빛문화재단 한광호 명예이사장과 고(故)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에게 2006년 ‘제9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이, 한중훈 아프리카박물관장, 최정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 위원장 등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자들에게 정부의 표창이 수여되었다.

문화헌장제정위원회, 문화헌장 공표식

문화헌장제정위원회는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일)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문화헌장 공표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헌장 제정 사상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문화헌장은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영역과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문화적 원칙과 가치들을 천명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으며, 나라 안팎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와 사회가 문호의 중용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모든 이가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주춧돌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지역문화단체, 여성·이주노동자·장애인·동성애 단체 등에서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공표식은 기본권리 및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다양성의 원칙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총 13항으로 구성된 문화헌장 낭독과 함께 13항의 의미를 표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우리협회 한상완 회장이 참석하였다.
[문화헌장 전문, 본지 101쪽~103쪽 참조]

울산남부도서관, “책 나누기 행복 더하기” 행사 개최



울산남부도서관은 SK(주) 울산공장과 공동으로 울산대공원에서 “책 나누기 행복 더하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5월에서 7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울산대공원 동문 SK(주) 홍보관인 웰컴하우스 일대에서 펼쳐진다.

책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영어스토리텔링과 동화구연으로 꾸며진다.

또한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 가까이에 지난해 개설한 공원문고가 자리하여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책 읽는 공원문화 조성을 위한 즐거운 문화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기사제공 : 울산남부도서관]

유성도서관, 제7회 ‘2006 북페스티벌’ 개최

유성도서관은 6월 10일(토) 제7회 ‘2006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지식, 정보, 문화 나누면 즐거움이 백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100여종의 양서 500여권을 전시하였다. 또한 떡으로 책 모양 만들기, 아카시아로 파마머리하기, 고무신 기차놀이, 책거리, 독서 퍼즐 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책 등의 프로그램도 펼쳐졌다.

또한 ‘책나무로 지혜의 싹을 틔워요’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동안 자신이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메모한 후 조명시설이 설치된 줄에 걸어 점등하는 행사도 가졌다.

천안교육청,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 책 축제’ 개최

천안교육청은 5월 20일(토) 천안중학교 체육관에서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 책 축제’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학교도서관 만들기·책 읽는 도시 만들기’라는 슬로건 내걸고 충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시마당, 체험마당, 대회마당, 부모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독서 캐릭터, 독서 만화, 북아트 등이 전시되고, 독서요리, 인형극 체험, 책 만들기, 국악체험, 한글 문패만들기 등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책 낭송대회, 독서 퀴즈 릴레이, 한글 도안그리기 대회 등도 열렸다.

충청북도, 제2회 책바다 도서전, 청풍명월 책사랑 축제 개최

충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청주교육청과 책바다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책바다 도서전, 청풍명월 책사랑 축제'가 5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수제책·종이 만들기, 독서 다이어리 제본, 온갖 몸짓으로 표현하는 독서결과전시회, 독서결과경연대회,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상설 전시장에서는 책바다도서전, 학급문고전, 그림책원화전이 운영되며 학교도서관대회와 특강도 행사기간 동안 개최되었다.

개막일인 25일(목)에는 교육과학연구원 광장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골든벨' 행사가 열려 입상자에게는 푸짐한 상품과 학급문고가 제공되며, 독서교육과 관련 우수학교 6개교에는 학교별 100만원씩 지원되었다.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유엔 정보검색 워크숍 개최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유엔(UN) 산하 국제기구의 정보·문서 검색에 관한 워크숍을 5월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개최하였다.

2004년 유엔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된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유엔 함마술드도서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유엔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된 9개 도서관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유엔 기탁도서관 시스템 개요 설명과 웹을 통한 유엔의 각종 문서와 회의록 접근방법과 보도기사·통계·법령자료 등에 대한 웹 검색, 유엔 자료검색 테크닉 교육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유엔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전남대, 동의대 7개의 대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모두 9개 도서관이다.

승실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정보활용 교육 의무화

승실대학교는 학술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웹기반 도서관 정보활용' 프로그램을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신입생의 필수 교양과목인 '읽기와 쓰기'에서 활용되며 이수 여부가 학점에 일정 비율로 반영될 예정이다.

60분 분량의 온라인 영상인 이 프로그램은 승실대 도서관 자료를 비롯해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KISS) 등의 자료와 장서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승실대학교 홈페이지(www.ssu.ac.kr)에서 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 안산학술정보관, 제8회 작가와의 만남 개최



한양대학교 안산학술정보관은 5월 18일(목) 소설가 공지영씨와 함께 '제8회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소설가 공지영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봉순이 언니』 등으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작가이다.

이 자리를 통해 학생과 작가의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사인회와 기념촬영 행사도 열었다.

도서동아리연합, 도심 속 책심기 행사 개최



전국 중·고등학교 도서동아리연합(이하 도동리)은 5월 28일 용산역 앞 광장에서 “도심 속 책심기” 행사를 가졌다.

올 해 “도심 속 책심기” 행사에서는 책을 가지고 하는 플래시몹과 “청소년자유콘서트”가 진행되었다.

플래시몹은 삭막한 도심 속에 책을 심어 책이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임을 보여주는 행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6월 11일(일)에는 “학교 도서관!! 생동하라!!”라는 목표로 도동리 제2의 창단식을 가졌다. 그동안 도동리가 다양한 외부 행사를 통해 외적 성장을 다져왔다고 판단하여 이번 제2창단식을 통해 도동리의 내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2006 서울국제도서전’이 6월2일(금)부터 7일(수)까지 6일 동안 COEX(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열렸다.



‘책으로 책으로’라는 구호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국제 행사로 코엑스 1층 태평양홀, 인도양홀 4500평 공간에 24개국 471개사가 참가해 책을 전시하고 구매상담을 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황진이』 등 북한책 160여종이 전시 되었으며 작가 4명의 글방을 재현한 ‘작가의 방’, 일연 탄생 800주년을 맞아 ‘삼국유사 특별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전시한 도서 1,500여권의 책 전시가 있었다.

또한 5인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의 출판사에서 나온 양서를 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독자와 함께 하는 좋은 출판사 도서전’도 있었다.

부대행사로 는 고운기의 『일연』과 재임스 맥그리거 번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신작발표회’가 있었다. 독서퀴즈 대회를 통해 우승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전달했으며 ‘저자와의 사진 한장’ 행사에는 김점선, 윤승운, 박시백, 진중권, 공지영씨 등이 나와 선착순 100명의 독자와 사진을 찍고 사인한 책을 선물했다.

이외에도 ‘저작권 상담실’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도서의 수출 및 외국 도서의 수입 등의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이곳에서는 비즈니스 상담 외에도 국내외 출판사 관계자 및 에이전시 관계자 등의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외국어 초록 도서 진영 및 초록 수록 도서 600권 전시하였다.

‘제3회 서울세계북아트전’도 열려 다양한 북아트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북아트를 제대로 알기 위한 무료 체험 이벤트를 마련하여 5가지

다른 주제의 북아트 작업 실습 체험행사도 가졌다.

6월 2일(금)과 3일(토) 양일간에 걸쳐 해외 출판인 초청 세미나도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안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국제출판협회장, 엔스 밤멜 국제출판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인도파키스탄·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출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에서 안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IPA회장은 'IPA 회장과 한국 출판과의 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혈먼 스트라우트 IPA부회장은 '국내 출판 산업 최근 트렌드 및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카바네야스 IPA회장은 6월 1일(목)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PA 소개와 국제출판계의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8회 IPA 서울총회'를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네이버 디지털라이징 설명회'와 '책만 들며 크는 학교 - 북아트' '전문인의 날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렸다.

문화예술위원회, 2·4분기 우수문학도서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www.for-munhak.or.kr)는 5월 29일(월) 강은교 시집 『초록 거미의 사랑』 등 70종 70권을 2·4분기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다.

이번 우수문학도서로는 시집 25종, 소설집 20종, 아동·청소년문학 10종, 수필집 7종, 평론집 7종 등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신예작가 첫 작품집을 10%, 지역출판사 간행 문학도서를 5%씩 할당하기로 함에 따라 2·4분기 우수문학도서 중 신예작가 첫 작품집은 19종(27%), 지역출판사 간행도서는 5종(7%)이 선정되었다.

예술위와 추진위는 이번에 선정된 42개 출판사의 책을 권당 2천부(평론은 1천부)씩 구입해 공공도서관, 교정시설, 복지시설,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낼 계획이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국내 반환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국내로 반환 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는 5월 31일(수) “도쿄(東京)대학이 소장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을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하는 데 양교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보 151호이자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총 1천893권 888책)은 임진왜란 이후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강화도 사고 등 4곳에 20세기 초까지 분산·보관돼 왔다. 이 중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초대 조선총독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모두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초 도쿄대 도서관 귀중서고에 중종대왕실록과 성종실록 등 47책이 소장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양국 간 반환 협상이 진행돼 왔다.

반환되는 조선왕조실록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7월 도쿄대 귀중서고에서 서울대 규장각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2006 독일 월드컵을 맞아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

2006 독일 월드컵을 맞아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수원영통도서관은 6월 7일(수)부터 17일(토)까지 세계 유명 사진작가들이 축구를 주제로 찍은 사진작품을 전시하는 '세계의 언어 - 축구'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사진전은 시민들에게 월드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한독일대사관과 매그넘 포토 에이전시(Magnum Photo Agency)가 무료로 사진을 제공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중에 『월드컵, 신화와 현실』 등 축구 관련 도서가 전시되는 '축구 테마북 전시회'

와 독일축구영화 '베른의 기적'이 상영되었다.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02년 월드컵 영광 재현을 기원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을 담은 '월드컵 축구 코너'를 6월 7일부터 7월 말까지 상설 전시관 형태로 운영한다.

이 코너에서는 2006 독일 월드컵, 월드컵 및 축구 자료 열람, 월드컵 축구 영상물, 국내 프로 축구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독일 월드컵 코너에는 본선 진출국 유니폼, 미니어처로 만나는 축구 스타, 월드컵 공인구를 포함한 축구용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년도 정보관리강좌 개최

한국정보관리학회는 “디지털 도서관의 통합검색과 전자자원관리”를 주제로 5월 26일(금)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정보관리강좌를 개최하였다.

■ 프로그램

- 디지털도서관의 통합검색기법
/ 이수생(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통합검색시스템의 사례 : Ex Libris의 Metalib
/ 홍준표(Ex Libris 한국지사장)
- 도서관 전자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전략
/ 심원식(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전자정보원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사례
/ 정희정(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산부)
-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E-Resource의 조직과 관리
/ 윤충남(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초빙교수)

한국비블리아학회, 2006년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한국비블리아학회는 5월 26일(금), 27일(토) 양일간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도서관과 독서교육 방향 : 독서(운동), 독서교육 그리고 독서치료'를 기획 주제로

2006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프로그램

- 학교도서관과 독서지도 프로그램
 - 발표 : 장윤금(숙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 : 이명희(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어린이 웹사이트 아이콘 연구
 - 발표 : 김혜주(경기대학교 강사)
 - 토론 : 박소연(덕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자책의 독서 효과에 대한 연구
 - 발표 : 황금숙(대림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
 - 토론 : 이종문(경성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
- 어린이 독서자료 선정 효율화를 위한 주제명표목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발표 : 장지숙(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토론 : 윤혜영(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초등학생들의 독서증진을 위해 어린이도서를 초등학교 읽기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
 - 발표 : 김영석(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 : 김승환(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 전략으로서의 독서진흥운동 모색
 - 발표 :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 토론 : 윤정옥(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한국 독서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 :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 발표 : 이용재(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 : 서혜란(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
 - :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순화(부산대학교 강사)
 - 토론 : 신주영(부산대학교도서관 사서)
- 독서치료에서 문학 - 정보의 심리학적 치료기제
 - 발표 : 김경중(우석대학교 교수)
 - 토론 : 박상희(광신대학교 교수)
- 주부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 발표 : 김수경(부산대학교 강사)

- 토론 : 김양우(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 원리에 관한 연구
- 발표 : 김종성(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 : 이만수(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6월 9일(금)과 10일(토) 양일간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 강당에서 '도서관의 교육봉사'를 주제로 2006년도 하계 학술발표회 및 학술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연구상에는 김승환 강남대학교 교수가, 우수논문상에는 오경목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다.

■ 프로그램

- 도서관 이용자 교육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
 - 발표 : 유재옥(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 : 곽동철(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공도서관의 이동 교육서비스에 있어서 구성주의 학습 모델 설계 및 효과
 - 발표 : 임형연(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토론 : 윤정기(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발표 : 노동조(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 : 이용재(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수용 및 확산에 관한 연구
 - 발표 : 김연례(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사서)
 - 토론 : 권은경(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중·일 과학기술정보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5월 18일(목)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당에서

'한·중·일 과학기술정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기술정보에 대해 주변국과의 새로운 협력과 교류를 위한 기틀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중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정보 전문기관의 대표와 전문가를 초청했다.

■ 프로그램

〈발제〉

- 중국의 최근 과학기술정보 개발동향
/ Zhang Xiaolin(중국과학원 국가과학도서관 소장)
- 중국의 정보 분석서비스
/ Hu Zhihui(중국과학원 국가과학도서관)
- 일본의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정책과 현황
/ Fukasawa Nobuyuki(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 한국의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윤종민(KISTI 정책연구실장)

〈토론〉

- 고영만(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조현양(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박계숙(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메타데이터와 의미 호환" 워크숍 개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메타데이터표준화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가 후원한 "메타데이터와 의미 호환(Metadata and Semantic Interoperability)" 워크숍이 5월 25일(수) 성균관대학교 6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야별 메타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메타데이터 간 의미 호환을 위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와 온톨로지 기술을 응용한 통합 모델 등이 제시되었다.

■ 프로그램

<Session 1 : 분야별 메타데이터 현황>

- 사회 / 심원식(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도서관 메타데이터 현황
/ 미을순(국회도서관 사서사무관)
- 방송영상 메타데이터 현황
/ 이재학(MBC 콘텐츠자료팀 연구원)
- 지식정보자원 메타데이터
/ 정의석(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임연구원)

<Session 2 : 메타데이터 간 호환 방안>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의 호환
/ 니홍석(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 온톨로지구축과 의미 메타데이터 관리
/ 이경일(솔투룩스 부사장)
- 데이터베이스연계를 위한 통합메타모델개발
/ 임태훈(DPC 지식표준팀 선임연구원)

디지털 라이브러리 컨퍼런스 개최

누리미디어는 5월 24일(수) “도서관과 한국형 지식콘텐츠의 미래”라는 주제로 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디지털 라이브러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의 디지털 콘텐츠의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

■ 프로그램

<1부>

- 한국 전자저널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 심성보(DBPIA사업부 이사)
- 도서관 환경에서의 전자책의 진화 모델
/ 신일성(콘텐츠사업부 이사)

<2부>

- 특별강연 : 도서관메일링리스트 10년사
/ 김창유(동덕대학교도서관, 도서관메일링리스트 관리자)

- 도서관과 함께하는 마케팅 WIN-WIN 제안
/ 이경표(영업기획팀 차장)
- 웹 DB의 새로운 도약
/ 권혁환(콘텐츠기획팀 차장)
- 국가지식과 민간 콘텐츠의 행복한 만남
/ 안건호(지식정보사업부 이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단체 관련자 초청 워크숍 개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5월 25일(목), 26일(금) 양일간 남이섬에서 ‘독서단체(기관) 관련자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독서진흥과 독서관련 단체 네트워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독서단체 및 기관 관련자 3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독서진흥운동 사례와 방법 및 현장에서 느낀 경험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남이섬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 책나라 축제’에 참가하여 세계어린이책전시회, 세계관광이미지자료전, 한국동요 100년전, 체코 동화그림전, 유니세프 자선책방, 한국의 뮤지션 40인 일러스트전 등을 관람했다.

■ 프로그램

<기조강연>

- 독서와 가치의 세계
/ 엄청식(서강대 철학과 교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장)

- 정부의 독서진흥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김수현(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사무관)
- 독서관련 단체 네트워크와 독서진흥사업 아이템 개발 방안
/ 이만수(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어린이와 도서관' 운영 현황
/ 오재하(어린이와 도서관 중부지부장, 초롱이네도서관장)

대한출판문화협회, 독서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사진제공 :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06년 연중 독서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두 번째 대형펼침막을 출판문화회관 외벽에 설치했다.

'책을 읽으면 행복합니다'를 메인카피로 한 첫 번째 대형 펼침막에 이어 이번에는 가수 김창완씨를 모델로 '왜 사냐고 묻는다 / 잘 살라고 말한다 / 책이 인생을 묻고 답한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번 대형펼침막은 6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06 서울국제도서전'의 홍보도 겸하였다.

한미 FTA와 관련 공개강좌 개최

미디어트는 5월 29일(월) 한미FTA 관련하여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운동 활동가이자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인 도로시 키드(Dorothy Kidd)를 초청하여 공개 강좌를 개최하였다.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자 : FTA에서 NAFTA까지'를 주제로 한 이번 공개 강좌에서는

1989년 미국과의 FTA, 그리고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이후, 의료, 교육, 문화 등 공공 서비스의 커다란 후퇴를 겪은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문제들을 짚어보았다.

한미 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개최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5월 24일(수)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한미 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 FTA에서 저작권 분야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과 쟁점 등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저작권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또한 한미 FTA에서 저작권 협상이 민중들의 문화적인 삶과 지식에 대한 접근환경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알아보았다.

■ 프로그램

〈사회〉

- 정상조(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제〉

- 싱가포르, 호주 등 미국이 체결한 FTA의 저작권 협정에 대한 설명 / 박민권(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과장)
- 한미 FTA에서의 저작권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대책위 입장 / 남희섭(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 위원장)

〈토론〉

- 김종철(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팀장)
- 김기중(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 도학선(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차장)
- 전용휘(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U-러닝 박람회 개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사)EBK, (사)한국출판인회의가 후원

한 'EBS U-러닝 박람회'가 6월 8일(목) 6월 9일(금)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3층 거문고B홀에서 개최되었다.

박람회는 U-러닝 환경에서 EBS VOD, AOD 및 e-book 등 관련자료 활용 방안, 사례 발표 전시 등을 통하여 공교육 및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청 정보화 담당자 및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온라인 콘텐츠 담당자가 참석하여 정보를 나누었다.

비영리 기관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세미나 개최

가이드스타 코리아 집행위원회는 6월 8일 전문컨설턴트 3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민사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스타 코리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Guidestar Alliance의 본부인 영국 CSS(Civil Society System)는 비영리기관들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민간자율규제시스템으로 공식 웹 사이트(www.guidestar.org)를 통해 비영리 조직 및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의 정보를 NPO, 기업재단, 정부 관계자, 언론계, 개인 기부자 등에게 제공하여 투명한 기부문화를 만들고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 민간기구 자율규제시스템인 가이드스타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가이드스타코리아의 소개와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비영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NGO학회, 자유기업원, 아이들과 미래 등이 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가이드스타 코리아 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유태형 관리지원과장이 참석하였다.

■ 프로그램

<사회>

- 박태규(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

- GuideStar Korea 도입 취지, 유용성, 한국사회 도입의 필요성과 전망
/ 정무성(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Guidestar Alliance 글로벌 현황과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영국CSS(Civil Society System팀)

<토론>

- Grantseeker : 이민영(공동모금회 나눔정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Grantseeker : 홍선교(굿네이버스 자원개발부장)
- Grantmaker : 임태형(KT 사회공헌팀 부장)
- 전문가 : 권순학(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 언론계 : 신연숙(서울신문 논설실장)

* 해외소식 *

국제표준화기구, ODF 표준으로 인정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는 5월 8일 Open Document Format(이하 ODF)을 ISO/IEC의 표준(ISO/IEC 26300)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ODF는 오픈 소스의 소프트웨어 OpenOffice.org에 이용되는 XML베이스의 파일 포맷이다. XML 관련 표준화 단체인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도 2005년 표준으로 인정된 바 있다.

ODF포맷으로 보존된 문서는 파일이 작성된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ODF와 연동되

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편집이 가능하다.

[출처 : <http://www.iso.org/iso/en/commcentre/pressreleases/2006/Ref1004.html>]

RLG와 OCLC의 통합

미국의 대기업 서지유틸리티인 RLG와 OCLC의 평의원회는 각자가 제공하고 있는 유사한 서비스를 OCLC로 통합하기로 했다. RLG의 회원 기관은 통합안에 대해 6월 7일까지 투표를 하고 이 의견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7월 통합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에서 RLG의 종합 목록은 OCLC가 제공하는 WorldCat에 합쳐질 예정으로 종합 목록의 통합 후 명칭은 WorldCat이 그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OCLC는 WorldCat을 야후,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WorldCat의 수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으로 OCLC는 정보의 수집·보존·제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http://www.rlg.org/en/page.php?Page_ID=20942]

미국, 노인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발표

ALC(Americans for Libraries Council)와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는 2005년 9월에 '지속적 생산성 유지를 위한 변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 도서관계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도 이러한 이용자에 대해 지금까지의 노인 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도서관은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 평생 학습의 기회와 커뮤니티 활동에 참가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노인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에 있어서의 '재산'이며, 서로 협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가기 위해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리더십, 모범 사례, 노인서비스에 관한 연수·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평생 학습이나 사회참가에 관한 자원봉사 센터나 건강 교육기관, 직업 훈련기관 등과의 파트너십을 주된 테마로 다루고 있다.

[출처 : <http://www.ims.gov/pdf/DesignsforChange.pdf>]

미국, 카네기 도서관의 지역사회 공헌 측정

미국·피츠버그시의 카네기 도서관은 110년의 역사에 처음으로 도서관의 지역 공헌도를 계량화 했다.

카네기 도서관과 카네기 멜론 대학의 경제 개발 센터는 카네기 도서관의 지역에의 영향을 '투자'에 대한 효과=경제적 가치', '지역사회나 주민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지난 4월에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5년 1,300여명을 넘는 개인이나 2개의 그룹(비즈니스 이용자, 관련 기관의 사람)을 대상으로, 비용대 효과 분석을 측정했다.

조사에 의하면 경제면에서의 영향에서는 연간 9,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4,100만 달러 상당한 도서·DVD·데이터베이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문해교육, 어린이 독서추진, 집회활동 등에 이용된다고 나타났으며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이 도서관 활동에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도서관 계획수립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http://www.carnegielibrary.org/about/economicimpact/>]

미국 뉴저지 데마레스트 한인 자치회, 지역 도서관 발전 기금 전달

미국 뉴저지 데마레스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모임인 '데마레스트 한인 자치회'는 지역 도서관을 위한 바자회에 참가하여 수익금을 전달했다.

5월 13일 데마레스트 더크 폰드에서 열린 이 바자회에는 주민 1,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한인 자치회는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해 2,800달러의 수익금을 기부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인 자치회는 기부행사 외에도 한인 학부모회와 함께 보석 세척과 시계 배터리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갈비와 만두 등의 한국 음식을 미국인들에게 소개하였다.

미국 오클랜드도서관, 다중 언어 서비스 실시

미국 오클랜드도서관은 소수계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oaklandlibrary.org)에서 다중언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첫 번째 지원 언어는 스페인어로 이 언어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스페인어 자료가 비치된 위치와 스페인어 스토리 타임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오클랜드 도서관은 아시안 브랜치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각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로 된 도서와 음반, 영화 DVD 등을 비치하고 있다.

지난 달에 아시안 브랜치는 한국영화 DVD 100편과 신간도서, 최신 인기가요 음반 등을 구입하여 한인들은 물론 한류 문화에 관심있는 타 커뮤니티 아시안들에게 대여해주고 있다.

앞으로 도서관은 영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대학교 한국학 도서관, 1900년대 초 사진 공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남가주대학교(USC)의 한국학도서관은 홈페이지(www.usc.edu/isd/korean)를 통해 1900년대 초반 한반도의 각종 생활상을 담은 사진 150여점을 공개했다.

이 사진들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코윈 테일러 목사 부부가 찍은 것으로 테일러 목사의 손자인 유잉 버나드 테일러가 기증했다.

당시 흑백으로 찍은 사진은 한국학도서관의 디지털 복원 작업을 거쳐 일부를 컬러로 복원되었다.

미국 시카고, 대규모 e-book 무료 내려받기 행사 개최

미국 시카고의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와 '월드 e-book 라이브러리'는 '제1회 세계 e-book 전시회'를 기념해 30만건의 전자책 텍스트를 한달 간 무료로 내려받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 행사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설립 35주년 기념일인 7월4일부터 8월4일까지 전시회 웹사이트에서 이뤄진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는 각종 e-book과 자료·기사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보통 때에는 8달러95센트의 접속료를 내고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데이터베이스이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일반인들이 e-book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늘리고 이와 같은 행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영국, 북스타트 사업의 확대

영국은 1992년부터 시작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한층 더 확대 실시하여 2008년까지는 유아에게 1번 제공되던 책을 취학 전에 총 3회에 걸쳐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5년 10월, 영국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는 26개의 출판사와 서점의 지원 아래 Sure Start(모든 아이가 인생의 확실한 시작을 시작하도록 교육, 보건, 복지, 생활 환경 등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의 8개월 검진 시에 주고 있던 "The Bookstart Pack"에 더해 새롭게 18개월을 맞이한 유아에게는 "Bookstart +"를, 3세가 된 유아에게는 "My Bookstart Treasure Chest"를 준다고 발표했다. 아이를 위한 전용 책이나 책을 넣는 가방 등 북스타트 가방은 순회 간호사나 초등 교육 시설 및 도서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북스타트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자 등록도 촉진하고 있다.

[출처 : <http://www.bookstart.co.uk/bookstart/schemes/lammy.php4>,

<http://www.booktokens.co.uk/consumers/bookstart.asp>]

영국 MLA,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국제 비교 착수

영국 박물관·도서관·기록관리관평의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는 영국국가도서관(BL)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시각장애인도서관분과와 공동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국제 비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4월 12일에 조사 담당 수탁자를 모집하였다.

이 공고에 의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및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지는 문화적·사회적인 배경, 각 국에 있어서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원, 자원봉사, 공영·민영이라고 하는 조직 형태, 운영 관리, 재정, 출판사를 포함한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의 제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활동, 자료에의 접근의 방법, 비용 등을 알아본다.

대상국은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4국으로, 아시

아에서는 일본, 한국, 베트남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또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보고서에서는 각국 사례에 대한 장점이나 약점 및 그 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상세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출처 : http://www.mla.gov.uk/resources/assets//International_library_services_tender_9450.pdf]

미국정부간행물출판국(GPO), 간행물 판매 전략 모색

미국정부간행물출판국(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이하 GPO)이 간행하는 정부간행물은 국내외의 연방 정부간행물 기탁도서관(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 FDLP)이나 웹 사이트(www.gpoaccess.gov)에서 열람할 수 있지만, 서점에서는 거의 유통하지 않아 구입이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GPO는 4월 12일자로 '정부간행물의 간행과 판매에 관한 관민 협동 안건'을 정하고 6월 1일까지 제안 모집을 실시하였다.

이번 제안 모집은 GPO를 대신해 정부간행물을 민간에게 원활히 공급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의 소매·도매·마케팅·판매·주문 등의 유통과 다른 연방기관의 간행물을 GPO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 업무와 기탁도서관의 업무 용의성 제고 등이 주요 사업이다.

[출처 : <http://www.gpo.gov/news/2006/06news10.pdf>]

사우디아라비아, 도서관 확충 계획 발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도라 국왕이 도서관 평의 위원회에 출석해, 현대의 기술과 문화나 지식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정보 센터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5월 4일 아랍 뉴스지는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현재, 약 80개의 공공도서

관이 있지만, 이 대부분은 대학 부설로 일반 시민, 특히 여성은 도서관을 오락·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에 2005년 9월 공공도서관의 증설, 장서의 확보, 문화 시설에의 전환, 일반 시민, 특히 여성에게에 개방이라고 하는 도서관 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의 과학, 지식, 문학, 예술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상호 번역의 중요성을 논했으며 모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백과사전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라비아어와 영어 2개 국어로 제작하여 인터넷으로도 제공하도록 했다.

[출처 : <http://www.arabnews.com/?article=81673>]

남아프리카, 과학정보의 공유·보존을 위한 전략 워크숍 보고서 공개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DATA)는 2005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토리아에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과학 정보의 보존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과학 정보 자원, 특히 생물 의학, 지구·환경 과학 분야 등의 정보 자원의 공유, 보존의 현상을 개관하고, 디지털 형식의 과학 정보 자원에서의 영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법, 조직, 기술 등)를 논의하였다.

또한 워크숍 결과보고서를 통해 생물 의학, 생물 다양성, 지구·환경 과학, 과학·기술·의학(STM) 정보의 공유나 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안했다.

[출처 : <http://stardata.nrf.ac.za/html/workshopCodataPublications.html>]

* 인사동정 *

제24대 권경상 국립중앙도서관장 취임



정부는 5월 23일(화) 국립중앙도서관장(1급)에 권경상(權慶相·50)관리관을 임명했다.

권 관장은 행시 23회 출신으로 주 영국대사관 참사관, 문화부 관광국장 과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 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숙현 관장 취임

정부는 6월 13일(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3급)에 이숙현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이숙현 관장은 1979년 사서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주제정보과장,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설립기획단장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및 IFLA 수서장서개발분과 상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신설도서관 *

양주시립꿈나무도서관



- 개관일자 : 2006. 6. 2.
- 면 적 : 부지면적 1800평
건축연면적 788평
- 관장성명 : 전낙보
- 주 소 : (482-835)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48-4
- 전 화 : 031-820-5970~5
- 팩 스 : 031-820-5979
- 홈페이지 : <http://libyj.go.kr>
- 특 징 : 어린이 및 유아를 위한 전용도서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일반도서 39,825권(어린이도서 : 24,546권, 영·유아도서 : 14,819권, 부모님 도서 : 460권) 비도서 : 3,493종, 잡지 : 40종을 갖춤. 1층에는 어린이방· 꼬마방이, 2층은 도움방· 사이버나라가, 3층에는 전시실이, 지하 1층에는 소리방, 어울림터가 있음.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 및 국경일.

성동구립금호도서관



- 개관일자 : 2006. 6. 15.
- 면 적 : 대지 863m², 건물연면적 1,494m²
- 설 계 : 기윤중합건축사무소
- 관 장 : 나병준
- 주 소 : (133-091)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688번지
- 전 화 : 02) 2282-5454
- 팩 스 : 02) 2282-5448
- 홈페이지 : www.sdlib.or.kr
- 특 징 : 지상4층 규모, 일반도서 17,625권, 비도서 1,636책/점을 갖춤. 지상 1층에는 보존서고, 2층에는 어린이열람실· 가족열람실· 영어원서 코너· 정보검색코너가, 3층에는 문헌정보실· 디지털정보실· 정기간행물코너· 장애인코너가, 4층에는 어학강좌실· 문화강좌실· 사무실· 정리 서고, 5층에는 하늘공원· 휴게실 등이 있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